

도서관, 천국의 또 다른 이름

어느 '문자 중독자'의 학창시절

이남희 | 소설가

중 든 싫든 어쩔 수 없이 나도 나이 마흔살을 넘기고 드디어 기성세대에 편입하게 됐는데, 그 후에 생긴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무심코 '내가 어렸을 땐 어땀다'는 식으로 말하기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말하는 나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십대인 한 청년이 이를 지적했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런 말을 꺼내기만 하면 청년들이 "드디어 선생님도 사십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네요"라고 놀리게끔 됐다. 그렇게 대꾸하는 청년들은, 마치 내가 한강에서 공룡이 해업치고 놀던 시절엔 강물도 매우 맑고 깨끗해서 살기 좋았다는 투의 회고담을 늘어놓는다는 표정들이어서 무척 쑥스럽다.

한번은 내게 왜 그런 증상이 있을까 하고 곰곰 고민해봤는데,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 사십여년에 이르는 한국 사회의 가파른 변화를 놀랍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고—이런 느낌을 격세지감(隔世之感)이나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하던가— 또 하나는 천국의 슈퍼마켓이 바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물질적 풍요가 넘치는 요즘 세상에 대한 선망 반, 질투 반의 부러움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와 비슷한 감정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났을 때는 대학을 졸업한 직후였다.

나는 유신 말기의 얼어붙은 시절인 1976년에 대학에 입학해 다녔고 대학을 졸업한 1980년에 '서울의 봄'을 맞이했다. 갑자기 겨울에서 봄으로 세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고드름처럼 눈앞에 매달려 있던 자유는 봄볕에 녹아 비로소 강물소리로 우리를 감쌌다. 그때 동갑내기인 친구들은 만나기만 하면 마치 응달에 서서 양지쪽을 시샘하듯 한탄하곤 했다. "우린 참 개떡같은 시절에 대학을 다녔어. 그치?"

각설하고 요즘 문단이나 출판 관계자들을 만나면 한결 같이 듣는 소리가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책을 지독하게 안 읽는다. 큰 일이다. 이러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한탄이다. 예전 같으면 잘 팔렸을 고전이 안 팔린다는 등, 또 '문화적 화전농법'(火田農法) 경향(대중적인 인기가 한곳으로 몰려 어떤 책은 백만부씩 팔리는데 비해 어떤 책은 아예 한권도 안 팔리는 현상)이 매우 심해지고 있다는 등, 또 젊은이를 붙잡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했더니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안 읽었다고 대꾸하더라는 등 하는 이야기가 오간다. 그리고는 독립군 같은 표정을 짓고서는 커다랗게 한숨을 쉬는 것이다. "말세야, 말세."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걱정하는 현상은 오히려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인생을 즐기며 사는 방식이 그만큼 많아지고 다양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어렸을 땐 문화활동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6·25전쟁이 끝난 지 십여년이나 지났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겨울같은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구경거리가 얼마나 드물었던지 시장통에 약장수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가 나타나 트럼펫만 불어도 온동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뿔뿔히 물려 들던 그런 시절이었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는 한 학급의 정원이 80명 정도 됐는데, 그 중 라디오를 가진 아이는 스무명 정도였고 텔레비전을 가진 학생은 아버지가 밀수의 왕초라고 뒷소문이 난 학생 한 명뿐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그 애네 집에 가보고 너무나 부러워서 입이 딱 벌어졌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형편은 아무리 조악하더라도 자신이 살 아보지 못한 다른 인생을 픽션을 통해서라도 대리체험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여전히 건재한 것인지, 나 같은 꼬맹이는 어른들이 해주는 이야기며, 조잡하게 인쇄된 만화책에, 그리고 어른들은 리어카에 책을 싣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빌려주는 대본 소설책에 의존해 갈증을 풀곤 했다. 그 무렵 우리 집에 있던 책 가운데 교과서가 아닌 유일한 책은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 꽃》 뿐이었는데,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이 책은 허영기 많고 공상 좋아하는 이모가 시집갈 때 빠뜨리고 간 것이었다.

1970년 피난살림을 정리하고 부산을 떠나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에서는 합격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와 더불어 편지 한통을 보냈다. 학교 도서관을 튼실하게 운영하기 위해 입학생들은 책 한권씩 도서관에 기증해야 한다는 일종의 기부 권유 편지였다. 당연히 우리 집엔 책 한권 살 만한 허튼 돈은 없었고 입학 후 담임선생님은 우리에게 책 한권을 학교에 내라고 독촉했다. 그때의 에타던 마음이란... 결국 어머니를 조르다 못해 표지도 떨어진 그 책을 몰래 학교에 갖다주고 말았다.

입학 초기 기부 독촉을 받을 때는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무시 무시하게 들렸다. 그러나 막상 학교 도서관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천국이 따로 없었다. 내가 다닌 중학교의 도서관은 별개의 건물로 열람실과 서고 건물이 있고 책이 잘 갖춰져 있기로 유명했다. 처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의 감흥이란. 그때 그 도서관은 내겐 원하는 것은 모조리 다 갖추고 있는, 지갑 걱정은 하지 않고 얼마든지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천국의 슈퍼마켓처럼 느껴졌다. 서고 문을 열 때의 그 황홀함. 어쩌면 그것은 부모를 조르고 줄라 간신히 스키를 손에 넣은 소년이나, 첫 월급을 타자마자 버리고 벌렀던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마련한 청년이 느끼는 그런 얼빠짐이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문화적 활동이 그때는 책 읽기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 신분으로 영화를 본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온 가족이 둘러앉은 안방이나 마루에서 시청해야 했다. 그러니 사춘기를 맞은 청소년답게 혼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누릴 수 있는 재미란 책 읽기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학교 이후 나는 책벌레가 됐다. 요즘의 청소년이 인터넷에 빠져 밤을 새우고 부모 속을 태우듯이 나도 책에 빠져 밤을 새우고 우리 부모를 걱정시켰다. 일종의 중독이었다. 문자 중독. 문자라면 모조리 읽어야 직성이 풀리는. (문자 중독에 관한 농담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누가 운전을 하다 비랑에서 굴러 입원을 했다. 문병 가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비랑에 간판이 있었는데 글자가 잘 안보여서 읽으려고 일어났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 간판에 뭐라고 써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일어서면 위험함' 이라고 써있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우리 부모는 그런 나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말리고 꾸짖었다. 나중에 책을 사기만 해도 화를 냈다. 대개의 청소년이 그렇듯 그 시절 나도 부모 말이라면 지독히도 안 들었고, 따라서 아버지 걱정대로 소주병 바닥만큼이나 두터운 안경을 끼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픽션이란 픽션은 다 뻘해지는 시기가 왔고 이 정도라면 나도 꾸며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결국엔 작가가 됐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거나 말거나.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일인치만 낮았더라면 세계사는 바뀌었을 거다 하는 류의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면박을 준다. 역사나 인생에선 '뭘가 어땠다면 달라졌을 것이다'는 식의 가정법은 아무 쓸모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내가 2000년대 한국 사회처럼 인생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시대에 성장했더라면 과연 작가가 됐을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다. 아닐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른다. 확언할 수 없다.

문자 중독인 나는 지금도 여전히 미친 듯이 책을 읽지만 그럼에도 영화도 보고 콘서트에도 가고 전람회도 돌아다니며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문자 중독이니까 책 읽는 시간은 아주 많고 달리 시간을 보내는 때는 많지 않다. 그런 탓인지 내가 '감명깊게 읽은 책을 듣도 보도 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면 즉각 '매우 무식하다. 걱정이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그러나 곧 이런 생각이 따라온다. 저 청년은 내가 이 영화를, 이 인터넷 사이트를 몰라서 매우 무식하다고 느낄 거라고. 그러면서 부러움과 시샘움이 섞인 눈으로 그 청년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참 좋은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구나...●